

정읍 무성서원-고창 갯벌 세계유산 후보 올라

(왼쪽부터) 고창 갯벌, 정읍 무성서원.



**서원-서남해안 갯벌 분야
2019년 등재여부 최종선정
도 “세부지적사항 철저히”
2022년까지 도내 10곳 목표**

정읍 무성서원과 고창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 후보에 올랐다. 23일 전북도는 정읍 무성서원이 한국의 서원 분야에 고창 갯벌은 서남해안 갯벌에 각각 세계유산 등재 후보에 올랐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신청 대상 후보 선정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세계유산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으며 최종적인 후보 선정은 내년 7월 이뤄진다.

전북도는 정읍 무성서원과 고창갯벌이 최종 신청 대상에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재청의 신청을 마치게 되면,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2019년에 결론난다.

최종 등재를 위해 전북도는 유네스코 공식 자문기구 이코모스(ICOMOS)의 세부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하게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또 갯벌

연구사업과 갯벌 출현 종 목록 작성, 기초생산량 연구와 갯벌연구사업, 해외전문가 신청서 초안 검토 및 보완, 국제학술대회 개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정읍 무성서원과 고창갯벌이 세계유산 등재에 성공하면 전북은 7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전북에서는 지난 2000년 고창 고인돌 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판소리(2003), 매사냥(2010), 농악(2014), 익산백제역사유적지구(2015)가 연속적으로 등재되어 현재 5개의 세계유산을 보유 하

고 있다.

정읍 무성서원과 고창 갯벌 이외에도 전북도는 백제역사유적지구 확장 등재(2020), 동학농민혁명기록물(2019), 남원 장수 가야고분군(2020), 벽골제(2022) 유적에 대한 세계유산 추가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노학기 문화유산과장은 “철저한 준비로 2022년까지 현재 등재된 5개를 포함 총 10개를 등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등재된 세계유산을 보존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가빈기자